

# 세계도시

2006. 5. 15. 제143호

## 목 차

### 도시경영·경제

1. 기업유치를 위한 '탈주택 지역' 전략 추진 (일본 사이타마市)
2. '지역과의 협동지침' 수립 (동경都 츄오區)
3. 육아관련 산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보고서 발간 (샌프란시스코)
4. 시티 프로모션 사업 모집 (일본 니이가타市)
5.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실시단체 모집 (동경都 세타가야區)

### 디지털 도시

6. 중국 최초로 디지털작품 판권 등록 서비스 제공 (북경)

### 복지·문화

7. 지역심리자문센터 설치 (북경)
8. '네트워크 아동보호'에 대한 공동의 컨셉 마련 및 실태조사 추진 (베를린)
9. 출소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세금감면 혜택 제공 (북경)

### 도시환경

10. 나무 쓰레기만을 사용하는 '나무발전소' 건립 (런던市 크로이돈區)
11. 도시계획 공원·녹지 정비방침 수립 (동경)
12. 시민참여율이 가장 높은 팔로알토 그린 프로그램의 성과 (캘리포니아州 팔로알토市)
13. 대중교통 위주의 친환경 교통체계로 탈바꿈 (런던)
14. 도시를 밝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조경과 조명 과세지구 운영 (캘리포니아州 오클랜드市)

### 도시교통

15. '모네오'(Moneo) 전자화폐 시스템 도입 (파리)
16. 중국 최초의 지하 입체교통 시스템 건설 (북경)

### 도시계획·건설·주택

17. 그린벨트 정책의 실효성 논쟁 (영국)
18. 긴자의 고층빌딩 개발시에 층고를 제한하는 '긴자 룰' 적용 (동경都 츄오區)
19. 민주주의와 도시계획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연구 진행 (영국)
20. 역사적 건축물 복원 지침서 발간 (영국)

### 방재·안전

21. 웹지도를 통한 방재·안전·방법 정보 제공 (일본 돗토리縣)
22. 모든 주택에 화재경보기 설치 의무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州)

**1. 기업유치를 위한 ‘탈주택 지역’ 전략 추진 (일본 사이타마市)**

일본 사이타마市는 2005년 7월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전개추진과’를 발족했다. 3년간 30개사 기업유치가 목표인데, 현재까지 9개사 유치에 성공했다. 생명과학이나 정보통신 분야 기업이 연구소나 본사를 사이타마市로 이전할 경우 10억 엔(약 83억 원)을 상한으로 하는 보조금 제도를 마련해 기업유치를 장려하고 있다. 요코하마市는 ‘기업입지 촉진 특정지역의 지원제도’를 도입해, 5년간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를 1/2로 하는 세제 경감 조치와 상한액 50억 엔(약 415억 원)의 조성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의 성공으로 요코하마市의 미나토미라이21 지구에는 2003년까지 약 980개사가 이전해 2002년의 세입효과는 약 110억 엔(약 900억 원)에 달했다. 사이타마市 기업유치 담당자는 市가 동경지역의 주택난을 해소하는 지역으로 전략하기 전에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확대를 도모하고 근무환경과 주거환경을 골고루 갖춘 국제 경쟁력 있는 도시로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이타마 신도심에 예정된 클라리온 본사 건설부지

([www.yomiuri.co.jp/e-japan/saitama/kikaku/046/2.htm](http://www.yomiuri.co.jp/e-japan/saitama/kikaku/046/2.htm))

**2. ‘지역과의 협동지킴’ 수립 (동경都 츄오區)**

동경都 츄오(中央)區는 지역이 안고 있는 과제 해결을 위해 솔선하는 단체와 힘을 합해 다양한 구민 수요에 세심하게 대응하고, 더욱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츄오區는 최근 협동의 기본적인 이념과 진행방법을 명확히 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와 區가 공통의 인식 하에 다양한 과제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 ‘지역과의 협동지킴’을 수립했다.

츄오區는 앞으로 구민을 비롯해 학생, 회사원 등 츄오區와 관련된 많은 사람이 지역활동에 참가하는 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양한 단체의 사회공헌 활동이 활발해져 단체 상호간 네트워크가 확대되어 도심형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지역의 힘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과의 협동지킴에서는, “공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단체와 區가 서로의 특성과 역할 차이를 존중하면서 공통의 목적으로 연대해 상승효과를 이끌어 내면서 공공의 과제를 해결하는 활동”으로 협동을 규정하고 있다. 츄오區가 협동이라는 가치를 내세우며 지킴까지 마련하게 된 것은 기존의 정회(町會), 자치회 등의 간부들이 고령화되고 있는 데다 후계자도 부족해 기능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NPO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

([www.city.chuo.lg.jp/kurasi/borantia/kyoudousisin2006/files/gaiyou0412.pdf](http://www.city.chuo.lg.jp/kurasi/borantia/kyoudousisin2006/files/gaiyou0412.pdf))

### 3. 육아관련 산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보고서 발간 (샌프란시스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는 2006년 3월 '육아관련 산업의 경제적 효과'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시와 민간기업이 지난 1년간 협동연구한 결과다. 육아관련 산업 투자가 샌프란시스코시 경제성장에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도시 수준의 육아지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고서의 목적이다. 육아관련 산업이 연간 1억 9100만 달러(약 1800억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약 4400명의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며, 2008년까지 육아관련 직업은 12.5%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경제적 기여도가 큰 육아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육아관련 산업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려 고용을 창출하고, 유연한 근무시간제도를 채택해 육아 관련 서비스 종사자의 근무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www.sfgov.org/site/mayor\\_page.asp?id=38377](http://www.sfgov.org/site/mayor_page.asp?id=38377))

### 4. 시티 프로모션 사업 모집 (일본 니이가타시)

일본 니이가타(新潟)시는 교류인구 증가, 도시 이미지 향상을 꾀하기 위해 민간 역량을 활용한 시티 프로모션 사업을 모집하고 있다. 선발된 사업에 대해서는 니이가타시 시티 프로모션 추진협의회와 니이가타시가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시티 프로모션 사업이란 니이가타시의 교류인구와 정주민구를 확대하기 위해 시의 매력과 우수성을 국내외에 효과적으로 알리는 사업을 말한다. 소재지에 관계없이 법인격이 있는 단체나 임의단체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선발된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대상 경비의 절반을 최고 100만 엔(약 8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www.city.niigata.niigata.jp/info/promo/jigyougaiyou/minkann/index.html](http://www.city.niigata.niigata.jp/info/promo/jigyougaiyou/minkann/index.html))

### 5.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실시단체 모집 (동경도 세타가야區)

일본 동경도 세타가야(世田谷)區는 지역내 교류를 활성화하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실시한다. 2005년에는 어린이 돌보기, 재해 대비, 지역명소 만들기 등 90여건의 사업을 지원했으며 2006년에는 더 많은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내 거주자, 학생, 회사를 중심으로 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지역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동네에 대해 이야기하는 공간을 만드는 활동, 함께 모여 배우거나 인재를 양성하는 활동, 동네의 자원을 활용해 매력을 증폭시키는 활동, 동네를 알리는 활동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단체에는 30만 엔(약 240만 원)을 상한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www.city.setagaya.tokyo.jp/cgi-bin/main/topics.cgi?mode=detail&cno=712](http://www.city.setagaya.tokyo.jp/cgi-bin/main/topics.cgi?mode=detail&cno=712))

### 6. 중국 최초로 디지털작품 판권 등록 서비스 제공 (북경)

2006년 4월 26일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북경시 디지털작품 판권 등록 홈페이지 개통식이 인민대회당에서 열리면서 북경시는 중국에서 최초로 디지털작품 판권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도시가 되었다. 디지털작품 판권 등록 홈페이지 개통에 따라 인터넷상의 디지털작품도 다른 형식의 작품과 같이 지적재산권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게 되었다. 홈페이지에 디지털작품 판권을 등록하면 저작권 등록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판권 등록과 더불어 판권 계약 정보 제공, 판권의 양도 및 매매 정보 게시 등이 있다. 이 홈페이지는 디지털작품의 특성을 고려해 전자인증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北京日報, 2006. 4. 27)

#### >>> 전문가 검토의견

무한복제가 가능한 만큼 저작권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한미 FTA 등 개방 조치가 강화되고 세계 시장화가 진행될수록 지적재산권 문제는 격렬한 논쟁거리가 되리라 예상된다. 그동안 중국은 최대 불법 소프트웨어 생산 국가라는 오명을 듣고 있었는데 북경시가 전면에서 나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우리 또한 중국 못지않게 불법 소프트웨어 유통 국가로 의심받고 있는 만큼, 북경시의 사례를 주목해 지적재산권 보호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나도삼 디지털도시부 연구위원(kuber21@sdi.re.kr)

#### 한줄 뉴스

- 호주 수도특별지구 정부, 시드니 일대 노동력 유인책의 일환으로 '캠버라에 살자' 캠페인 전개
- 시드니시, 교통유발 사회비용 연간 180억 호주달러에 달해

#### <북경>

- 북경시 관광협회, 시 소재 30개 관광명소의 서비스 및 환경수준 평가
- 주유소, 골목, 중고물품 시장 등 11종류의 지역정보 대상 '북경시 지역정보 문의 핫라인' 시범 시행
- 환경건설 사업에 시민참여 확대 위해 전문 핫라인 12319와 홈페이지 개통

## 7. 지역심리자문센터 설치 (북경)

2006년 4월 21일 북경市는 市 최초로 송문구(崇文區)에 지역심리자문센터를 설치했다. 1차로 10명의 사회, 심리, 의학, 교육 부문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심리상담을 진행한다. 송문구 정부 조사에 의하면 60%의 주민들이 심리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노인심리 문제, 실업심리 문제, 교육 문제 등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대다수 주민들은 적절한 해소방안을 모른 채 주로 주민간의 분쟁, 가정폭력, 민원제기 등으로 해소한다고 조사되었다. 심리자문센터는 주민들이 지역 내에서 이런 심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심리자문센터의 심리자문 활동은 사회자 1명과 관련 전문가 1명이 심리자문을 구하는 주민과 직접 대면해 해결방안을 같이 모색한다. 심리자문센터의 활동을 통해 고부갈등, 실업자의 재취업 과정 중에 나타나는 스트레스, 결손가정에 대한 심리 문제, 노인심리 문제 등의 해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北京晚報, 2006. 4. 22)

### >>> 전문가 검토의견

심리상담을 포함한 정신건강 서비스는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보편화되지 않고 있으나 시민건강사업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영역이다. 특히 최근 자살, 우울증, 약물중독, 가정폭력과 같이 사회적 수준의 대처를 필요로 하는 시민 정신건강 관련 문제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 내에서 심리상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심리상담 관련 서비스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분야별로 복지관이나 민간단체에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개별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이를 '건강'의 문제로 더욱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보건정책과를 중심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김선자 도시사회부 부연구위원(sunjakm@sdi.re.kr)

## 8. '네트워크 아동보호'에 대한 공동의 컨셉 마련 및 실태조사 추진 (베를린)

베를린市の 교육, 청소년 및 체육부와 건강, 사회 및 소비자 보호부는 공동으로 '네트워크 아동보호'에 대한 컨셉을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2006년 6월 말까지는 구체적인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구체화된 컨셉은 ① 산부인과, 조산원, 건강서비스, 지역 사회보호 서비스 등이 의무적으로 공동협력해야 할 '위험요소'의 정의, ② 네트워크 아동보호에 해당되는 의무적인 상호협력 검토, ③ 아동 비상서비스와 관련해 긴급 핫라인 체계가 아동복지소의 협력센터와 공공 복지기관, 해당 부모와 관계자까지 잘 구축되어 있는지에 대한 조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6/04/04/37817/index.html)

## 9. 출소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세금감면 혜택 제공 (북경)

북경市는 수도종합치안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市에 있는 2만여 명의 출소자 중 약 60%만이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출소자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출소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세금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최근 수도종합치안위원회가 출소한 지 5년 이하의 대상자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출소자는 일반 시민에 비해 남성, 장년, 단신, 저학력, 기능 미보유, 미취업자 비율이 높다고 한다. 관련 통계에 의하면 출소자들의 취업률은 65.3%지만 일시적인 취업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출소자들의 재범률도 늘어나, 2005년 현재 재소자 중 재범 이상의 비율이 25.7%로 2000년에 비해 3.9% 높은 수치다. 수도종합치안위원회는 출소자를 위한 취업지원 정책으로, 출소자에게도 '재취업우대증'을 발급하고 출소자를 전체 직원의 40% 이상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3년간 기업 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와 더불어 일정 소득수준이 안 되는 출소자에 대한 생활보호 대상자 지정과 거처가 없는 출소자를 위한 보호시설 설치로 거주, 생활문제를 지원해 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러한 보호시설 이용은 일반적으로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제한했다.

(北京日報, 2006. 4. 25)

## 도 시 환 경

## 10. 나무 쓰레기만을 사용하는 '나무발전소' 건립 (런던市 크로이돈區)

영국의 친환경개발협회와 런던市 크로이돈(Croydon) 자치구는 정원과 농촌지역의 수목 정리에서 나오는 나무 쓰레기만을 사용하는 '나무발전소'(Tree Station)를 만들기로 했다. 이 나무발전소는 지역주민에게 난방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며 운영 관련 인력을 고용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난방을 제공하게 된다. 연간 1100톤에 해당되는, 정원과 수목 정리 과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재생 에너지로 사용하는 효과를 얻을 뿐 아니라, 2010년까지 현재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 줄인다는 정부 정책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www.rudi.net/udunews/index.cfm](http://www.rudi.net/udunews/index.cfm))

### >>> 전문가 검토의견

나무는 자연적으로 분해되거나 연소시켜도 같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 나무발전소에서는 나무를 연소시키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만 전기에너지 및 열에너지를 회수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효과를 얻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도시지역의 녹지면적이 적어 발전소를 운영할 만큼 안정적으로 나무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울시에서도 가로수 등에서 발생하는 낙엽과 전지목(剪枝木)의 일부를 자원회수시설에 투입해 난방에너지를 회수하고 있다. 서울시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가로수 등의 전지목을 한 곳에 모으면 소규모 건물의 난방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에서도 조경과, 공원과, 각 구청에서 가로수 및 공원 등에서 발생하는 폐목을 수거해 공원관리사무소 등 소규모 건물의 난방에너지로 사용하거나, 근교의 원예농가에서 난방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겠다.

/조항문 도시환경부 연구위원(chohm@sdi.re.kr)

## 11. 도시계획 공원·녹지 정비방침 수립 (동경)

동경都와 도내 각 市·區는 '물과 초록이 네트워크된 도시, 동경'을 실현하기 위해, 녹화사업의 핵심이 되는 도시계획 공원·녹지의 계획적·효율적인 정비 촉진을 목표로 하는 정비방침을 공동으로 수립했다. 정비방침은 첫째, 2015년까지 향후 10년간 우선적으로 정비에 착수할 공원·녹지로 가미이타마시 공원, 히가시후시미 공원 등 172개소를 선정하고 우선정비구역 약 450헥타르를 설정했다. 둘째, 2006년 6월 1일부터 우선정비구역 이외 구역의 건축 제한을 2층에서 3층으로 완화하고 정비를 위한 연수(年數)를 늘렸다. 셋째, '민간설립공원제도'를 신설하고, 우선정비구역 이외 지역에 민간사업자가 시민에게 공원을 개방하도록 했다.

([www.koho.metro.tokyo.jp/koho/2006/04/kiji/tosi.htm](http://www.koho.metro.tokyo.jp/koho/2006/04/kiji/tosi.htm))

## 12. 시민참여율이 가장 높은 팔로알토 그린 프로그램의 성과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市)

미국 국가재생에너지연구원은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市의 그린 프로그램을 미국에서 시민 참여율이 가장 높은 10개 정책의 하나로 선정했다. 2003년부터 시작한 팔로알토 그린(Palo Alto Green)은 재생 에너지 공급 프로그램이다. 주요 에너지원은 바람과 태양 에너지이며, 최근 230가구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풍력 발전소도 지었다. 이 프로그램에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곳은 일반 사업장과 가정이며, 2006년 4월 현재 3851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에너지 비용 절감과 함께 환경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이 프로그램으로 8573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였는데 이것은 자동차 1652대의 통행을 없앤 것과 같다. 팔로알토市는 알라메다 카운티에 있는 태양열 집열시설에서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팔로알토 그린 프로그램의 에너지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인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www.cpau.com/programs/green/gindex.html](http://www.cpau.com/programs/green/gindex.html))

### 한줄 뉴스

- 미국 오كل랜드市, '자전거 출근의 날' 행사 개최
  - 8km 이내 직장이 있는 사람이 모두 자전거 이용시, 6만대 자동차 통행과 68톤의 배기가스 감소

### <상해>

- 2009년 완공 예정으로 50만 와트 규모의, 세계에서 가장 큰 지하 변전소 건설 추진
- 노인전용 아파트촌이 준공되었지만 비싼 임대료로 외면 받아

### 13. 대중교통 위주의 친환경 교통체계로 탈바꿈 (런던)

730만 시민과 인근 통근자, 관광객으로 붐비는 런던의 교통체계가 지난 5년간보다 친환경적인 교통시스템으로 탈바꿈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런던교통공사의 2005 환경 보고서에서 밝힌 친환경 런던 교통시스템의 성과와 계획은 다음과 같다.

- ①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2000년 이후 런던 주요 도로의 자전거 교통량은 2배로 증가했고 이에 따라 공사는 2006년 550만 파운드(약 95억 원)에서 2007년 2400만 파운드(약 415억 원)로 자전거 교통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다.
- ② 에너지 절약과 재활용: 2000년 4%에 머무르던 지하철의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은 2004년 18%로 증가했고, 대형폐기물에 대한 재활용률도 8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③ 대안 에너지로 가는 대안 교통수단 도입: 도로교통 부문에서는 2006년 여름이면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태양열을 이용한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체제를 갖추게 되며 여기에 무공해 수소연료 버스가 3대 도입, 운영될 계획이다. 교통체계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자치구별로 대기질 현황에 맞는 투자, 개선 프로그램(오염 흡수 도로포장재 시설, 청정지역 지정 운영)이 실시되어 2003년 이후 미세먼지 발생량의 28%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 국회의사당과 정부 청사가 위치한 도심 웨스트민스터에는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될 계획이다

([www.tfl.gov.uk/tfl/press-centre/metro/article.asp?id=1010](http://www.tfl.gov.uk/tfl/press-centre/metro/article.asp?id=1010))

### 14. 도시를 밝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조경과 조명 과세지구 운영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市)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오클랜드市는 2006년 3월 시내의 공원, 나무, 녹지를 더욱 밝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조경과 조명 과세지구 운영계획을 새로 마련했다. 현재 오클랜드市에는 130개 이상의 공원, 7500개의 가로수, 25개의 레크리에이션 센터, 3만 6000개 이상의 가로등이 있다. 지난 1989년부터 오클랜드市는 조경과 조명 과세지구를 지정, 운영해 왔는데 최근 운영예산에 비해 실제 지출액이 많아져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따라 크게 단독주택지역, 공동주택지역, 상업 지역으로 나누어 조경과 조명 과세지구를 지정한 후 부동산 소유주에게 매달 9달러(약 8400원)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부동산 소유주가 납부한 돈은 조경 관리, 레크리에이션 센터 보수, 공원과 역사 보존지역 개선, 가로등과 공원 내 조명 관리 등에 사용한다.

([www.oaklandpw.com/Page700.aspx](http://www.oaklandpw.com/Page700.aspx))

### 15. '모네오'(Moneo) 전자화폐 시스템 도입 (파리)

파리 시민은 이제 파리시내 주차기계에, 기존 선지불 형태의 파리 카드(Paris Carte)와 함께 '모네오'(Moneo) 전자화폐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06년 3월 15일에 파리시내 12개 구에 처음 도입된 모네오 전자화폐 시스템은 2006년 6월까지 나머지 區로 확장되어 파리시민의 편의를 돕게 될 예정이다. 모네오 전자지폐는 충전식으로 파리 카드보다 다양한 기능과 편리성을 갖추게 되는데 주차뿐 아니라 신문, 빵, 우표 등을 사는 데도 이용할 수 있다. 프랑스 은행들과 연계된 이 모네오 카드는 자신의 은행계좌와 바로 연결되어 돈이 충전되는 방식과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운영되며 초록색 카드와 파란색 카드로 구별된다. 사용할 때 비밀번호가 필요 없고 소액결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은행과 우체국, 상점에서 구입이나 충전이 가능하다.

([www.paris.fr/portail/deplacements/Portal.lut?page\\_id=6733](http://www.paris.fr/portail/deplacements/Portal.lut?page_id=6733))

([www.moneo.net](http://www.moneo.net))

#### >>> 전문가 검토의견

서울시는 1996년 프랑스 파리의 스마트카드 시스템의 아이디어를 도입해 오히려 신용카드와 연계한 후불형과 T-머니와 같은 선불형 카드로 발전시켜 선진국을 놀라게 한 바 있다. 그동안 파리의 교통카드는 단순한 선불카드였으나 최근 전자화폐로 발전하고 있어 시사점이 있다. 서울에서도 기개발된 스마트카드를 편의점이나 주차장, 택시, 고궁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시민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는데, 파리의 노력이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김경철 도시교통부 선임연구위원(gckim@sdi.re.kr)

### 16. 중국 최초의 지하 입체교통 시스템 건설 (북경)

북경시 금융가 지역이 중국 최초로 대형 지하 3층 입체교통 시스템으로 건설된다. 금융가의 중심에는 3만<sup>2</sup>의 광장을 건설하고 지하에는 지상의 녹화공간을 보호하고 대기오염과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체교통로를 조성한다. 지하 1층은 보행공간으로 중심광장에 있는 모든 건물로의 진입이 가능하다. 지하 2층은 차량통행로로 금융가의 모든 지하주차장과 연결되고 주요간선도로로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금융가에 입주해 있는 금융기관과 기업은 1200여개로 중국 인민은행 본점, 은행감독위원회, 증권감독위원회, 보험감독위원회 등 중국 최고 금융감독기구와 공상은행 본점, 중국은행 본점 등 주요 금융기관 및 중국이동통신, 중국전신 등 대기업의 본사가 입지해 있다. 종합계획에 의하면 2007년에 이 지역의 개발이 완료된다.

(北京晚報, 2006. 4. 19)

**17. 그린벨트 정책의 실효성 논쟁 (영국)**

농촌지역의 개발과 도시 근교로의 주거지 확대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그린벨트 정책이 탄생한 영국에서도 녹지제한구역 제도에 대한 논쟁이 활발해지고 있다. 보수당과 유사한 정책노선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연구소인 Adam Smith Institute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 「Land Economy: How a rethink of our planning policy will benefit Britain」에서 관료화되고 정치적으로 낡은 제도인 그린벨트 제도가 인구의 9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는 현재에도 필요한 정책인지 비판하고 있다. 보고서에 제시된 해법은 더 이상 녹지라고 하기 힘든 도시 인근 그린벨트는 과감하게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고, 생산성과 주거인구 비율은 낮으나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농촌지역에 대한 토지 계획을 재조정하자는 것이다. 보고서 저자는 영국내 농장 3%의 90% 면적에 조립식 녹지면적 11%가 증가하며 영국내 농장 3%의 5% 면적을 주거지로 전환할 경우 주택 수급 및 일자리 확보 등으로 지역 균형발전 효과도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지계획과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노동당 정부의 부총리는 그린벨트 정책은 지속가능한 주거공간 마련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항변했으나 곧 치러질 지방선거를 통해 토지이용 및 보전 정책에 대한 논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www.planningportal.gov.uk/england/professionals/en/1115314013229.html](http://www.planningportal.gov.uk/england/professionals/en/1115314013229.html))

([www.adamsmith.org/images/uploads/publications/landeconomy.pdf](http://www.adamsmith.org/images/uploads/publications/landeconomy.pdf))

**18. 긴자의 고층빌딩 개발시에 층고를 제한하는 ‘긴자 룰’ 적용 (동경都 豊島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긴자 룰’은 고층건축 붐이 일고 있는 타 지역과 구별을 뒤 긴자만의 고유한 마을을 형성하기 위해 동경都 豊島區가 정한 방침이다. 긴자에는 건축기준법에 따라 높이 31m인 빌딩이 많다. 그러나 용적률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1998년 豊島區는 지구계획 ‘긴자 룰’을 수립, 건축물 높이 56m 이하, 용적률 1100%까지의 기준을 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 룰은 정부에서 정한 특례제도를 제외하기 때문에 특례에 의한 대규모 개발계획에는 브레이크를 걸 수 없는 상황이다. 2005년 긴자 8가에 완성된 높이 약 120m의 긴자 마츠이 빌딩이 그 예다.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긴자 6가의 마츠자카야 백화점의 재건축이다. 1982년에 개점해 긴자에서 가장 오래된 백화점으로 내진성이나 설비의 노후화로 재건축이 계획되고 있다. 31m의 저층부와 135~190m의 고층부를 조합한 오피스, 호텔, 주택, 백화점의 복합시설로 회사 설립 100주년에 해당하는 2010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화의 유산 계승과 관계되는 대규모 개발이라면 고층건축이 인정되지만 긴자의 거리풍경을 위해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대화해야 한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www.kyushu.yomiuri.co.jp/news/ne\\_06042502.htm](http://www.kyushu.yomiuri.co.jp/news/ne_06042502.htm))

## 19. 민주주의와 도시계획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연구 진행 (영국)

영국의 두뇌집단 데모스(Demos)는 농촌보호협회와 함께 도시계획과 민주주의 구조에 대한 상관관계와 역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도시 전반의 일에 관여하는 도시계획가가 긍정적인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근거로 새로운 방향 모색을 시도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의 도시계획 시스템이 법률적으로 긍정적인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도시계획가들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했다. 특히 주민참여가 도시계획에 적용되고 있으나 주민참여가 의사결정과정에서 어떤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급변하는 사회에서 새로운 커뮤니티와 전통적인 도시계획 시스템간의 격차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전했다.

([www.planningresource.co.uk/pp/news/index.cfm?fuseaction=FullDetails&articleUID=a38eaffa-ba7f-4a44-b70b-ffbab75af80a&e=1](http://www.planningresource.co.uk/pp/news/index.cfm?fuseaction=FullDetails&articleUID=a38eaffa-ba7f-4a44-b70b-ffbab75af80a&e=1))

## 20. 역사적 건축물 복원 지침서 발간 (영국)

영국 BBC 다큐멘터리 '역사적 건축물 복원' 프로그램 담당자는 영국 황태자 재단의 도움을 받아 역사적 건축물 복원 지침서를 발간했다. 이 지침서는 역사적 건축물의 복원 자체뿐 아니라 건물과 관계된 소유권의 문제, 기술상의 어려움, 복원을 위한 재정 조성 등 복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인 부분까지 다루고 있다. 보고서는 여러 가지 실제 사례를 상세한 도판과 함께 설명하고 있어 도시계획가, 지방정부 공무원, 복원 관련 단체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Planning, 2006. 4. 27)

- 스코틀랜드, 케런곰스(Cairngorms) 국립공원 내 송전용 철탁 건설 반대로 전력회사와 마찰
- 파리市, '영화 속의 파리'(Paris au cinema)라는 주제로 파리 시청에서 전시회 열어
- 런던市, '에너지 지킴이賞' 제도 시행으로 지하철역의 에너지 절약 유도
- 영국 서포크 지역, 폐쇄된 시멘트공장을 대규모 겨울스포츠 시설인 스노우센터(Snow Center)로 재개발

<동경>

- 기능 전승과 취업 촉진을 위해 장인(匠人) 학원 개강
- 마치다市, 시립 보육원 서비스 품질 제고 위해 ISO9001 인증 취득 추진

**방재·안전**

21. 웹지도를 통한 방재·안전·방법 정보 제공 (일본 돗토리縣)

일본 돗토리縣에서는 현재 구축 중인 새로운 지리정보시스템 '돗토리 Web맵'을 2006년 5월부터 공개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지도상에 방재나 관광, 도시계획 등 縣에 있는 여러 정보를 제공하며, 지자체가 인터넷에 공개하는 지리정보로는 일본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16km에서 300m까지의 7단계 축척을 구축했으며 일부지역은 위성사진도 열람할 수 있다. 지도상에는 주택지역에서 일어난 강도 및 절도 정보 등과 교통사고 발생일시와 장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시민이 스스로 방법,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준다. 제공되는 정보는 지난 1년간의 것으로 휴대전화에서도 접속할 수 있으며, PC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방재무선' 등의 활용도 고려하고 있다. 縣의 생활안전부 관계자는 사건·사고가 실제로 어디서 일어났는지 쉽게 알 수 있으면 그 지역의 방범활동도 충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www.yomiuri.co.jp/e-japan/tottori/news001.html)

>>> 전문가 검토의견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 웹을 통해 방재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방법이다. 최근에는 재난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 인터넷뿐 아니라 무선통신을 이용한 정보 제공(SMS 서비스)이 적극 시행되고 있다. 수준 높은 방재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제별(풍수해, 화재위험, 지진위험, 설해위험, 산사태위험, 교통위험 등)로 다양한 지도가 작성되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도 방재안전 관련 정보시스템(유·무선 통합) 구축을 통해 시민의 방재안전 관련 정보요구에 부응하며, 다양한 방재안전지도를 제작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석민 디지털도시부 연구위원(lsm@sdi.re.kr)

22. 모든 주택에 화재경보기 설치 의무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州)

2006년 5월 1일부터 호주 뉴사우스웨일스州의 모든 주택에 화재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이미 시행중인 빅토리아州와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州에 이어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도 신규주택은 물론 기존에 지어진 집에도 의무적으로 화재경보기를 설치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퀸즐랜드州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화재경보기에는 간단히 배터리로 작동되는 것과 주택 전기단자에 전기선으로 연결돼 천정에 부착되는 것이 있다. 복도나 거실, 침실 등 천정에 부착하는 배터리 작동 화재경보기는 연기에 잘 반응하며 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지만, 전기 과부하 등으로 인한 화재위험을 경고하는 광전자 방식 화재경보기보다 효율면에서 다소 부족한 것이 단점이다. 전기단자에 부착하는 화재경보기는 반드시 자격증이 있는 전기기사가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100~200호주달러(약 7만 2000원~14만 4000원)의 비용이 든다. 화재경보기 수명은 평균 10년이며 배터리는 매년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 배터리 교체시기를 잊지 않기 위해 일부 가정에서는 매년 서머타임 종료 시점을 교체시기로 정하기도 한다.

([www.fire.nsw.gov.au/community/athome/smokealarms/index.php](http://www.fire.nsw.gov.au/community/athome/smokealarms/index.php))